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노랫말 속 사랑의 의미

김진규(가천대학교 조교수)*

정기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1. 들어가며
2. 블랙핑크의 자기파괴적 사랑과 부조리
3. BTS의 자기유폐적 사랑과 타자
4. 나오며

이 논문은 2019년부터 전 세계 최고 남녀 아이돌 그룹으로 인정받아 온 BTS와 블랙핑크의 노랫말 속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BTS의 '나'에 대한 사랑과 블랙핑크의 '너'의 대한 사랑은 매우 달라보이지만, 이들은 결국 타자가 없는 자기유폐적인 사랑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블랙핑크는 데뷔 초부터 '불' 같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 파국적인 것을 예감했다. 이후 사랑의 파국이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강렬함과 영원성 그리고 진정성을 보증해주는 반대급부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사랑을 자신의 존재 의미가 걸려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카뮈가 시지프스의 부조리를 묘사한 것처럼, 블랙핑크는 결국 사랑이 파

* 제1저자

** 교신저자

국이 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고통만이 유일한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견디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블랙핑크는 노랫말 속에서 나와 다른 타자로서의 '나'에 대한 고민은 녹아있지 않다. '그는 왜 나와 다를까, 이러한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타자에 대한 고민과 그와 경험을 공유해가면서 나와 너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BTS도 처음에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식하지 않고, 고민 없이 달리는 행위를 통해 재귀적으로 '나는 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타자'인 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BTS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며, 다양한 모습들은 모두 '나'라는 재귀적인 자기규정을 바탕으로 그러한 고민의 중지를 선언했다. 최근 앨범에서는 타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을 향해 환호하는 팬들이 갖는 내면의 슬픔을 접한 후 자신들의 동일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서술한다. 이는 자신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타자와의 조우와 그것을 통한 타자(팬)에 대한 사랑의 심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발전된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 논문은 블랙핑크와 BTS 노랫말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두 그룹이 자신들의 노랫말을 통해 사랑에 대한 사유를 전개해나가고 있고 이것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나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의미에 대한 성찰, '나'의 존재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의미 있는 '관계맺음'이 어렵다는 사실을 두 그룹의 노래는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BTS, Blackpink, 타자, 부조리, K-pop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방탄소년단(이후: BTS)과 블랙핑크의 노랫말 속 사랑의 의미에 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BTS는 LOVE YOURSELF

시기에 이르러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의 지위에 올랐으며, 블랙핑크 또한 2020년 이후 세계 최대의 걸그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모두 한국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세계 대중음악에 끼치는 한국 음악계의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반영하듯, BTS와 블랙핑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2019년 전후로 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BTS의 성공 요인 중에 노랫말이 중요하다는 지적¹⁾을 반영하듯, BTS 노랫말 중 교육에 관한 분야에 대한 연구(김영환·윤보미·김선정, 2021), 스토리텔링 전략(정지은, 2019), 노랫말의 사회적 논점(Zhang Kehui, 2021)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렇게 BTS 노랫말은 그 사회적, 교육적, 언론 매체적 의미가 탐구되고 있지만, 노랫말 자체의 인문학적 의미에 대한 접근은 아직은 소략한 실정이다. 물론 최근에 문화콘텐츠나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관점에서 노랫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노랫말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자주 사용한 단어의 빈도를 측정하는 등에 한정되어 있다.(김도경, 2019; 반원근, 2020) 이러한 연구들은 BTS 노랫말이 그들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살피거나, BTS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노랫말이 주장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서 BTS 노랫말의 의미를 탐구할 때 비로소 BTS 노랫말의 인문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TS에 비하면 블랙핑크의 노랫말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²⁾

1) BTS의 팬들은 메시지의 보편성과 건강함을 BTS만의 중요한 매력이라고 꼽았다. 김영대. 2019, 「BTS: THE REVIEW」, 알에이치코리아, 111~112쪽. 이러한 메시지는 BTS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주목된 바 있다. 윤여광. 2019,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 물론 가사를 조금씩 다룬 논문들이 있으나 꼭마다 1~2문장으로 그 노랫말의 특징을 제시하는 식이다. 장유나. 2020, 「국내 시대별 아이돌의 음악적 특징과 대중적 영향력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BTS나 블랙핑크의 노랫말 중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랫말을 중점적으로 살펴면서, 이들 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세계 최정상 인기 남녀 두 그룹의 노랫말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둘의 노랫말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는 자연스러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랑에 대한 특정한 메시지가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라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남녀 아이돌 그룹이라는 발화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블랙핑크의 노래들의 경우 대부분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기에 전체 앨범을 대상으로 삼았고, 다수의 앨범을 발표한 BTS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팬들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LOVE YOURSELF’ 시기와 ‘MAP OF THE SOUL’ 시기를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이 앨범들에서 작사는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블랙핑크와 BTS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표출된다는 점에서 이 노랫말 분석을 통해서 블랙핑크와 BTS라는 페르소나의 사랑에 관한 생각 전개를 파악할 수 있다.³⁾

이 논문은 ‘사랑’이 참된 자아 인식의 전제이자 결과라는 점에 주

변화 양상 고찰: 1세대부터 3세대의 아이돌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106쪽 참조.

- 3) 필립 아우스랜더는 어빙 고프만의 페르소나 개념을 대중 음악가에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대중 음악가의 페르소나는 음악가 본연의 모습, 매스미디어로 매개된 스타 이미지, 음악에 부여된 이미지가 혼합되어 구성된다. Auslander, Philip. 2019. “Framing Personae in Music Video”, *The Bloomsbury Handbook of Popular Music Video Analysis*. Ed. Lori A. Burns & Stan Hawkins. NY: Bloomsbury Publishing Inc.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블랙핑크와 BTS의 노랫말은 다양한 작사가들에 의해서 쓰이지만, 블랙핑크와 BTS라는 스타를 매개로 노랫말의 페르소나가 구성된다고 보고, 그러한 페르소나의 메시지로 노랫말을 분석하기로 한다.

목한다. 타자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다. ‘나’에 대한 사랑이 대상으로서의 ‘나’와 의식으로서의 ‘나’의 분리를 전제할 때, 후자는 타자의 시선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콥 로고진스키는 오늘날 인격적 통일성을 지키는 ‘참된 자아 인식’은 이중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실체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맹목적 확실성에 빠진 유아론적이고 단독적인 자아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 ‘자아’를 타자에 대한 폭력의 근원으로 보고 이를 ‘없애야 할 환영’으로 보는, 즉 자아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자아살해’에도 맞서야 한다.(자콥 로고진스키, 2017:10-24) 이러한 이중의 과제는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사회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합의가 부재하는 ‘해체된’ 사회에서 ‘나’는 스스로 자신의 인격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는 과제를 짊어진다. 문제는 그러한 자아의 확신이 맹목적인 자기동일성의 확인과 타자에 대한 폭력적 규정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타자와 무관한 ‘살아있고 단독적인 나’에 대한 확실성의 추구는 타자의 부정과 억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때 요청되는 것이 ‘사랑’ 다시 말해 ‘타자 안에서 이뤄지는 자기 규정적 자아의 끊임없는 죽음과 생성’이라고 본다.⁴⁾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때 타자가 ‘나의 있음’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며,(조광제, 2013:543-545) ‘타자의 얼굴’ 앞에 자아를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또 다른 ‘자아살해’가 된다.(자콥

4) 김진규. 2017, 「'가면고'에 나타난 자기 관계적 부정성과 사랑」 『한국현대문학』 53, 한국현대문학회, 124쪽 참조. 이 논문에서는 자콥 로고진스키와 지젝의 논의를 활용하여 내 안의 ‘낯선 타자’와의 조우와 존재의 우연성에 바탕한 자아 인식의 의미를 살폈다. 관련 내용은 이 논문의 122-124쪽 참조.

로고진스키, 2017:19) 따라서 ‘나’의 존재 의미를 타자와의 대면에서 찾으면서도, ‘나’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블랙핑크와 BTS의 노래를 통해 ‘나’가 타자를 향해 열려 있음으로써 ‘나’와 ‘세계’를 낯설게 볼 수 있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 자체를 ‘나’라는 존재의 통일성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 참된 자아 인식이며 사랑임을 살필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세계’에 대한 나의 규정을 부정하는 과정, 다시 말해 ‘타자 안에서 이뤄지는 이 끊임없는 부정과 생성’이 사랑임을 고찰하는 이 논문은 두 그룹의 노래 속 문제의식과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를 통한 인문학적 성찰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2. 블랙핑크의 자기파괴적 사랑과 부조리

블랙핑크는 「Square One」(2016)의 〈붐바야〉와 〈휘파람〉으로 데뷔하여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 이때 〈붐바야〉의 가사는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주장하며, “네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도네” “I know you wanna touch” 등으로 노골적으로 상대를 유혹하는 내용이다. “이제 달려야지 뭘 어떡해/난 철 없어 겁 없어”, “오늘은 너와 나 젊음을/Gamble”이 당시 블랙핑크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젊음과 매력을 바탕으로 “맨 정신 따윈 버리고/하늘을 넘어서 올라갈 거야/끝을 모르게 빨리 달리고 싶어”라고 하며, 데뷔의 포부를 젊은이들의 도박 같고 광기에 가까운 사랑에 비유하고 있다. 〈휘파람〉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자신을 보면 모두 휘파람을 분다고 하며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보이는 한편, 상대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며 이 사랑을 “Fire”라고 비유하고 “안아줘 더 세계”라고 노골적인 성애적 사랑을 요구하며 유혹하는 가사이다.

그 다음 앨범 「Square Two」(2016)는 앞선 앨범의 ‘사랑=Fire’라는 비유를 계승하고 더 전면화한다. 〈불장난〉은 “우리 사랑은 불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멈출 수 없는 심리를 강조한다. 여기서 사랑=Fire라는 비유는 “내 전부를 너란 불길 속으로/ 던지고 싶어”에서 잘 나타나듯이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암시한다. 이를 화자도 잘 알고 있기에 두려움도 느끼지만 이보다는 “널 향한 끌림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길로 나아가며 이때 사랑을 ‘crack’ (코카인의 속어)으로 은유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랑이 자기파괴라는 결말로 갈 것이라는 확실한 예감은 없으며 여전히 화자는 “이게 약인지 독인지” 모르는 상태로 희미한 두려움만을 느끼며 “이 사랑이 오늘 밤을 태워버리게” “이런 날 멈추지 마”라고 하며 그 열광적인 사랑을 계속 추구한다. 같은 앨범의 수록곡 〈Stay〉도 사랑=fire라는 비유를 지속하며 “가끔 어둠이 올 때면 I’ll be your fire”라고 하며, “어두운 밤이 날 가두기 전에/내 곁을 떠나지 마”라고 하여 결국 fire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이며, 어두운 밤은 죽음을 의미하기에 사랑=생명이라는 은유를 성립시켜 사랑이 곧 삶의 근원적 생명력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화자가 사랑하는 인물은 이미 사랑이 식었고 화자에게 “거친 말들로” 상처를 주는 존재일 뿐이라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블랙핑크의 세 곡들이 사랑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희미한 불안함을 보여줬다면, 이 곡에서는 처음으로 사랑이 식어서 떠나려는 상대와 이를 붙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서 “불장난”에 내재한 희미한 파국의 예감을 보다 직접적으로 현시한다.

다음 해에 발매된 「마지막처럼」(2017)은 이러한 파국의 예감을 지

속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열정적인 사랑을 “마지막처럼” 하겠다는 선언이다. 앞선 〈봄바야〉나 〈휘파람〉처럼 화자는 “터질 것처럼 안아줘”, “거짓말처럼 키스해줘”라고 상대를 유혹한다. 이어 “I be the Bonnie/and you be my Clyde/We ride or die”라고 하여 화자는 자신을 보니고 상대를 클라이드라고 한다. 보니와 클라이드는 1930년대 연쇄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로 1967년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영화화되어 널리 알려졌다. 이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결국 경찰들에 의해 사살당하고 만다. 이렇게 자신을 보니와 클라이드에 비유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윤리를 뛰어넘을 정도의 강렬한 사랑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we ride or die”라고 하여 그 사랑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는 앞서 “Stay”에서 나왔던 것처럼 결국 사랑이 없다면 죽음과도 같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가사에서는 사랑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사랑이 곧 죽음이라는 인식, 즉 사랑은 결국 죽음이라는 파국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에로스는 죽음 충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논의되었다. 에로스는 두 사람의 합일의 욕망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도 연관되지만, 동시에 이는 자아를 포기하는 죽음과도 연관된다. 에로스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자아를 잃을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이는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다.(바타유, 2009)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듯 화자는 “너 뭘 데 자꾸 생각나” “내 몸이 맘대로 안 돼 어지러워”라고 하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을 통해 “won't you set me free”라고 하여 오히려 “그만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열정 또는 광기에 몸을 맡기자고 한다. 이러한 죽음 충동은 “날 터질 것처럼 안아줘”라는 가사에도 암시되어 있다. 데뷔 때 〈휘파람〉에서부터 사랑을

Fire로 비유했던 것에 내재해있던 파국적인 사랑의 단초가 「마지막처럼」 앨범에 와서는 노골적으로 전면화 되는 것이다.

2018년 발매된 「Square Up」의 타이틀곡 〈뚜두뚜두〉는 블랙핑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노래로 사랑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 후속곡 〈Forever Young〉는 〈마지막처럼〉의 인식을 계승하여 사랑과 죽음을 연관시키며 순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we ride or die”나 “마지막처럼 내 입 맞추길”은 〈마지막처럼〉의 가사를 반복한 것이다. 사랑이 바로 순간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라, 사랑 속에 있다면 “I could die in this moment”라고 고백한다. 사랑이 순간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느낌과 마음에 불을 지른 것 같은 강렬함 때문이라고 노래한다. 이때 사랑은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젊음의 특권이자 젊음을 불사를 권리로 표현되며, 이는 다시 “we ride or die”나 “Pinked out or murdered out”에서 보이듯 보니와 클라이드의 광기와 죽음을 함축한다. 이 곡에서 사랑의 파국이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강렬함과 영원성 그리고 진정성을 보증해주는 반대급부이다. 즉 사랑하거나 죽거나라는 선택지는 사랑이 없다면 죽어도 좋다는 의미와 동시에 사랑이 죽음과 연결되면 그 사랑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⁵⁾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은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순간을 영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 놓을 수 없게/순간이

5) 이러한 인식으로 ‘동반자살’이 1920~30년대에 유행처럼 번지고는 했다. 특히 식민지 시기 젊은 남녀의 “불같은 사랑” 때문에 동반자살하는 것은 문학 작품에서도 빈번히 나타났고,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었다. 천정환. 2010. 「정사(情死), 사라진 동반자살」 「내일을 여는 역사」 41,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30-253쪽 참조.

영원할 수 있게/년 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아/tonight/I could die in this moment”라는 가사는 표면적으로는 사랑=불이라는 은유로 ‘마음’에 불을 질러달라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이는 동반자살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시간 속에서 영원하게, 젊음이 타오르게 ‘불을 질러줘’라는 말에 바로 이어서 오늘 나는 죽을 수도 있어라는 말을 연결하는 것에는 죽음 충동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2019년 발매한 「Kill this Love」 앨범은 이러한 죽음 충동과 사랑에 대해서 안녕을 고하며 사랑 따위는 죽여버리자고 선동하는 것으로 급변한다. 이러한 급변의 배경으로는 <See U Later>(2018)나 <Kick it>(2019) 같은 바람 피우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아니길>(2019)과 같은 아픈 이별에 대한 곡들이 있다. <Kill this Love>에서 사랑은 <불장난>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약과도 같은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드는 중독성이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독성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천사같은 Hi 끝엔 악마 같은 Bye”에서 Hi는 마약에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High와 같은 발음으로 언어유희를 목적인 것이며, 이는 뒤이어 “매번 미칠듯한 High 뒤엔 뺄어야하는 Price”와 운을 이루며 마약을 연상하게 한다. “Its so fire with him I go boo hoo”(그와 불타올라서 나는 미쳐버려) “you look crazy”(너 미친 것 같아) “got me all messed up”(완전 엉망이 되어 버렸어) “But you plus me sadly can be dangerous”(너와 내가 함께라면 슬프지만 위험해) “We’re all making love That kills you inside”(우리는 우리를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사랑을 하고 있어) “Gotta kill this love before it kill you”(이 사랑이 너를 죽이기 전에, 이 사랑을 죽여야 하겠어) 등과 같은 가사는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후렴에서 “나 어떡해 나약한

날 견딜 수 없어”도 “나약한”과 ‘나 약한’이 동음으로 인한 언어유희이자 힙합에서 흔히 말하는 ‘펀치라인’으로 이 노랫말에서 사랑=마약이라는 은유를 성립하게 한다.

이렇게 사랑이 마약으로 은유되는 까닭은, 사랑이 마약과 같이 자기 파괴적이어서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을 흡입할 때는 미칠 것 같은 쾌락에 휩싸이지만, 이는 신체를 파괴한다. 이를 “감정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체가 비주체가 되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은 마약이나 사랑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매번 파괴적인 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마약/사랑에 대해서 “더 내놔봐 give me some more”이라고 애걸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불장난>에서는 사랑이 마약 같은 것이라는 점을 어렵פות이 인식하면서도 그 ‘불장난’에 빠져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처럼>이나 <Forever Young>에서는 그러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의 에로스적인 면모를 오히려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 자기 파멸적인 사랑을 단호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사랑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죽여버리라고 선동한다. 뮤직 비디오에서는 군악대 이미지를 도입하고 노래에서는 트럼펫 소리를 통해서 이러한 여전사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에 정규앨범의 타이틀곡 <Lovesick Girls>(2020)에서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노래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강렬한 여전사들이 결국 다시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겠다고 결단을 내렸지만, 다시 마약으로 돌아갔다는 슬픈 결말일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노랫말을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노랫말은 “Love is a drug that I quit”(사랑은 내가 그만둔 마

약이야)이라는 구절을 통해 사랑을 마약과 동일시한 〈Kill this Love〉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화자는 “we were born to be alone”이라며 본질적으로 홀로 있도록 태어났다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사랑을 계속할 것이라고(“But I don’t care I’ll do it over and over” 상관없어 나는 계속 하고 또 다시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사의 시작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원한 밤/창문 없는 방에 우릴 가둔 love/What can we say/매번 아파도 외치는 love//다치고 망가져도 나/뭘 믿고 버티는 거야/어차피 떠나면 상처투성인 채로 미워하게 될걸/끝장을 보기 전 끝낼 순 없어/이 아픔을 기다린 것처럼//아마 다 잠깐 일지도 몰라/우린 무얼 찾아서 헤매는 걸까//But I don’t care I’ll do it over and over/내 세상 속엔 너만 있으면 돼//We are the lovesick girls/네 멋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순 없어/We are the lovesick girls/이 아픔 없인 난 아무 의미가 없어

이 가사는 이렇게 “영원한 밤/ 창문 없는 방에 우릴 가둔 love”로 시작한다. 영원한 밤은 양가적인 의미를 지닌다. 밤은 연인들의 시간이며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밤은 절망과 우울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한 밤은 영원하고, 또 창문 없는 방으로 이미지화된다. 창문 없는 방은 밖을 볼 수 없기에 유폐된 감옥과 같은 공간으로 사랑이 우리를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주체가 사랑의 “노예”(〈Kill this Love〉)와 같이 자유가 속박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어차피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상처투성인 채로 미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을 화자는 잘 알고 있다. 본질적으로 자신들은 홀로 있게끔 운명 지워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대체 “무얼 찾아서 헤매”고 이러한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반복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화자에게 사랑이 주는 “아픔 없인”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즉, 사랑은 화자의 존재 의미가 걸려있는 것으로 비록 사랑이 아픔을 주지만 이것이 없으면 화자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화자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자신을 불쌍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 왜냐하면 화자에게 사랑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마지막처럼>에서나 <Forever Young>에서 사랑이 곧 영원해지는 것이라는 인식과 닮아 있으면서도 다르다.

이제 사랑은 단지 이성애적인 끌림과 연애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의미 자체를 지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랑은 일방적으로 연애 대상이 끝내는 것(“네 멋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순 없어”)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태도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카뮈의 『시지프 신화』와 유사하다.(카뮈, 2016) 여기서 카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 시지프의 신화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부조리 철학을 설명한다. 시지프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바위를 산꼭대기 위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다. 엄청난 고통 끝에 바위를 산꼭대기 위로 밀어 올리면, 바위는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이 바위를 산꼭대기 끝까지 밀어 올려야 한다. 시지프는 바위를 산꼭대기 위로 밀어 올리면서, 이 바위를 산꼭대기 끝까지 밀어 올린다고 해도 이것이 다시 떨어질 것을 알고 있다. 카뮈는 시지프의 신화를 통해서 무의미한 인간의 삶이라는 부조리를 인식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무의미한 삶을 묵묵하게 살아나간다는 데에서 인간 삶의 의미를 찾았다.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고

통이 전혀 무의미하고, 이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질 것이고 또 다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 인간 삶의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블랙핑크가 〈Lovesick girls〉에서 제시한 화자도 이렇게 카뮈의 시지프처럼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점이 매우 흡사하다. 그런 점에서 이 노랫말에서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화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노예처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둬서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조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블랙핑크는 데뷔작에서부터 사랑은 불이라는 은유를 통해 노랫말을 작성하고 이러한 상상력이 전개되면서 사랑=마약, 사랑=범죄라는 은유로 확대되며 자신들의 사랑관을 전개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고통스럽고 자기 파괴적인 사랑을 그만둬야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만, 그 이후 사랑이 없는 삶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파국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사랑이라도 추구해야 하는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블랙핑크의 사랑관은 전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불같은 사랑에 빠지고 그 광기와 같은 사랑에 탐닉하다가도 이를 반성하고 사랑 따위는 이제 내게 없다고 한 후에 결국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고 추구하는 전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유려한 은유와 가사로 앨범마다 고민을 연속적으로 전개하며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블랙핑크의 노랫말은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서 카뮈의 시지프의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것과 블랙핑크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도 지적해야 한다. 시지프의 바위는 주체 혼자만의 문제라면, 블랙핑크의 사랑은 나와 다른 주체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블랙핑크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인 다른 존재를 향한 열림의 차원까지는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블랙핑크는 계속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의 상대인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놀랍게도 블랙핑크는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는 것이다. 단지 대상이 ‘남성’이라는 점, 특히 상대를 ‘오빠’(<<붐바야>>)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연상 남성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성애 규범적인 서사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⁶⁾, 이러한 상대의 타자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블랙핑크가 사랑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블랙핑크의 노랫말 속에서 타자는 계속 바뀌더라도 그 타자의 타자성은 전혀 나의 고려 대상이거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사랑은 어디까지나 내가 경험하는 마약과 같은 강렬한 경험으로 인식되지, 나와는 다른 너를 알아가고 이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경험의 차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블랙핑크가 이러한 자기 파괴적 사랑과 부조리 이후에 노랫말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 이러한 내가 사랑하는 타자에 대한 탐구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BTS가 말하는 ‘나를 사랑하기’도 결국 이러한 ‘타자’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6) 이런 점에서 K.will의 <이러지마 제발>(2012) 뮤직비디오는 이성애 규범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노랫말을 듣고는 화자가 경험한 사랑이 이성애라고 생각하는 청자는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반전을 접하기 전까지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을 자신의 친한 남성 친구의 여자 친구를 사랑하는 남성(서인국 분)의 이야기로 해석하게 되고, 마지막에 사실은 남성 주인공이 자신의 남자 친구를 사랑했다는 점에서 반전을 느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이러한 반전을 충격으로 의도한 것 자체가 이성애 규범성이 전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BTS의 자기유폐적 사랑과 타자

UN 연설과 LOVE MYSELF 캠페인 등에서 드러나듯이 BTS는 단순한 세계적 보이그룹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다. 특히 BTS가 펼친 LOVE MYSELF 캠페인은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고, 유니세프의 ‘엔드 바이올런스(#END violence)’와의 협약을 통해 전 세계 아동 및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으로 확대되었다. 이 캠페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BTS의 LOVE YOURSELF 시기의 노래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관한 고민은 단순히 이 시기의 노래에만 한정되지 않고, MAP OF THE SOUL의 시기로까지 확장된다. 2장에서는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는 「LOVE YOURSELF 結 ‘Answer」(2018) 앨범의 〈IDOL〉과 「MAP OF THE SOUL : PERSONA」(2019)의 〈Intro : Persona〉, 「MAP OF THE SOUL : 7」(2020)의 〈Louder than bombs〉를 중심으로, BTS의 ‘사랑’에 대한 고민이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노래의 주제 의식이 갖는 의의를 밝히는 것을 넘어 각 노래의 가사 속 그들의 고민이 심화되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BTS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BTS의 LOVE YOURSELF는 말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왜 ‘나’를 사랑하기 어

려운 것일까. <IDOL>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나에 대한 타자의 규정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타자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노래의 전반부는 타자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타인이 자신을 '예술가' 혹은 '아이돌'로 규정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타인의 규정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준다("You can call me artist/ You can call me idol/ 아님 어떤 다른 뭐라 해도/ I don't care// I'm proud of it/ 난 자유롭네/ (. . .) 손가락질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실제로 BTS의 리더인 RM의 곡 <Too Much>, <Unpack Your Bags> 등에서도 '아티스트'와 '아이돌'의 경계에 서 있는 자신들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 있다. 실제로 대자적 존재로서의 의식은 타자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변광배, 2005, 237-238) 타자는 무엇보다도 '나를 바라보는 자'로서, 나는 그의 시선 안에서 사물화 된다. 이런 점에서 타자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가 된다.(변광배, 2005:219-221) 힙합 뮤지션이 되고자 했던 RM 등은 자신을 '아이돌' 등으로 규정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박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IDOL>에 나타난 이 두 가지 곤경에 대한 대응은 단순하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규정에 대해서는 '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난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나 자신을 그 무엇과 거래하지 않으며, 내가 할 일을 하겠다(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want/ I never gon' change/ I never gon' trade/ (. . .) I do what I do)'고 선언한다. 또한 나의 다양한 모습에 관해서는 "어차피 전부 다 나이기에/ 고민보다는 강 달리네"라고 말한

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나’가 야기하는 갈등을 해결했다기보다는 이 갈등에 대해서 눈을 일시적으로 돌린 것에 불과하다. ‘아티스트’와 ‘아이돌’이라는 타인의 규정이 야기하는 모순이나 부조화(“irony”)는 BTS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계속되는 주제이다. 이를 “I’m proud of it” “나는 항상 나였기에” 자유롭다는 인식은 재귀적이며 그 자체로 어떠한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IDOL〉, 〈ANSWER〉 등의 가사에서 나타나듯이, ‘나’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끊임없이 변한다. 이때 ‘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인은 결국 자기 안의 세계에 갇혀 ‘나’와 ‘세계’에 대해 의미 있는 인식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 명명할 수 없는 그 무엇(it)인 ‘나’를 “나는 항상 나”였다고 하는 재귀적 환상 속에 밀어붙일 때만 모순과 갈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No more Irony”). 내 안의 무수한 나를 향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어차피 전부 다 나”라고 하는 환상은 나와 나의 거리에서 오는 반성적 사유(고민)가 아닌 재귀적 운동(“강 달리네”) 속에서 성취된다(“내 속안엔 (내 속안엔) 몇 십 몇 백명의 내가 있어/ 오늘 또 다른 날 맞이해 (맞이해)/ 어차피 전부 다 나이기에 (나이기에)/ 고민보다는 강 달리네 (달리네”).

인간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타자의 존재를 통해서 재구성한다. 나의 있음이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신’만이 해당된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I am who I am)”라는 규정처럼 신은 자신의 있음에 대한 근거를 외부에서 취하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존재한다. 사르트르 역시 대자적 존재인 인간의 궁극적 욕망은 외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를 창조하는 존재로서 ‘즉자-대자’의 결합, 곧 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변광배, 2005:261)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I Know what I know) 나의 욕망을 내가 알기 때문에(I Know what I want) 타자를 신경 쓰

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대자적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 노래의 제목이 <IDOL>이라는 이상, 즉 인위적으로 만든 신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즉자-대자'의 결합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팬들은 그러한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기 안에서 끌어오지 못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럼에도 '나'가 존재한다는 확실성에 매달릴 경우, 나는 자폐적 '환상/도피'에 갇힐 수밖에 없다. 타자와의 갈등과 내 안의 무수한 나라는 사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맹목적인 행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다시 말해 "고민보다는 강 달리"는 것이 그러한 자기유쾌적 세계 속에서 이뤄지는 '있음'에 대한 환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의 있음에 대한 재귀적 선언과 가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달린다(Running)'는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다. 자신의 있음, 혹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열정적인 행동들은 그 자체로 진정성 있는 삶의 증거로 기능한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동들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타인의 규정과 나의 여러 모습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 '아티스트', '아이돌' 등 타인의 규정을 모두 받아들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정체성은 그러한 규정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인지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내 안의 여러 모습에 관해서도 자신을 다면적 존재로 인식하는지 혹은 그러한 다면성을 통합하는 '자아'를 고민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고민을 괄호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나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궁극적 결론이 될 수 없다("어차피 전부 나이기에 (나이기에)/ 고민보다는 강 달리네 (달리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재귀적인 선언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해결해갈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아래에 인용할 구절은 추상적이고 재귀적인 선언으로 점철된 노랫말 속에서 ‘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Face off 마치 오우삼, ay/ Top star with that spotlight, ay/ 때론 슈퍼 히어로가 돼/ 돌려대 너의 Anpanman/ Wow 24시간이 적지/ 헛갈림, 내겐 사치/ Wow I do my thang (I do my thang)/I love myself

여기서 인용되는 작품은 오우삼 감독의 영화 「페이스 오프」와 일본 애니메이션 「호빵맨(Anpanman)」이다. 이 두 작품은 중심인물들의 얼굴이 바뀐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각 작품 속 주제는 BTS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다. 「페이스 오프」에서 FBI 요원인 손 아처와 테러리스트 캐스터 트로이는 서로 얼굴이 바뀌게 되며, 이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 ‘호빵맨(앙팡맨)’의 얼굴은 단팥빵(앙팡 /안팡)으로, 그는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떼어 주기도 하고, 얼굴이 손상되거나 싸우는 적의 특성에 따라 얼굴을 바꾼다. 이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얼굴/가면’이 바뀌면 그 인물의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즉 ‘가면-가짜’ ‘얼굴-진짜’의 대립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페이스 오프」에 대한 지젝의 지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젝은 이 영화가 결국 ‘나’라는 존재가 다른 ‘얼굴’을 입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다시 말해 나의 ‘있음’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서 있음을 말한다.(지젝, 2008:283-285) 가면 아래에 ‘진짜 얼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면 그 자체가 ‘나’가 된다. 인용한 노랫말 바로 뒤에서 BTS는 ‘내 속의 무수한 나는 전부 다 나이기에 날 인정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테

러리스트 캐스터 트로이는 강제로 FBI 요원 손 아치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덧씌웠다. 즉 내게 덧씌워진 ‘얼굴/가면(face)’는 타자에 의해 부여된 것이며, 그것은 나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린다. 이렇게 볼 때 여러 나를 받아들이고 타자가 아닌 나의 규정을 붙들겠다는 BTS의 주제는 ‘face/off’와 엇갈리게 된다. 가사의 맥락에서는 자신들이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맥락에서 ‘face off’를 사용했지만, 오우삼의 영화에서는 타인이 씌워준 얼굴로 인해 ‘나’가 바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영화의 맥락에서 보면, ‘나’는 타인의 규정(얼굴)에 영향을 받아 바뀌며, 그 명확하지 않은 나의 집합 속에서 ‘확실한 나’ ‘나만의 나’라는 환상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 고민보다 무조건 달리는 그 집착의 간단없는 운동 속에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양광맨’ 역시 ‘얼굴/가면(face)’의 교체에 따른 나의 변화를 보여 주지만, 그 캐릭터의 얼굴 변화가 주로 타자의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타자를 곤경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너의 양광맨이 되어 (자신의 얼굴을 내게) 돌리’겠다는 노랫말은 「LOVE YOURSELF 轉 ‘Tear’」 앨범의 〈Anpanman〉의 주제이기도 했다.⁷⁾ 의식은 항상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의식으로 존재하는 ‘나’는 다른 무엇과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변광배, 2005:133-134)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욕망은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맹목적인 타자의 부정은 현실도피이거

7) 이 노래에서 BTS는 동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추억 속 캐릭터인 ‘양광맨’을 소환해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노래/단팥빵’을 주겠다고 말한다. 비록 그들은 역시 여전히 ‘미로’ 속에서 헤매며 상처 입고 있지만(“눈 뜨니 hero but still in 미로 (· · ·) 계속 몰래 몰래 상처 만땅”), 아픔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슈퍼 히어로’가 되겠다고 말한다.

나 자기유폐적 환상에 그치고 만다. 하지만 BTS는 자신들의 ‘노래/단팔빵’을 통해 팬들을 위로하겠다는 사실을 정체성의 핵심에 위치 시킴으로써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한다. 물론 <IDOL>에서 BTS가 ‘단팔빵/노래’를 주는 대상으로서의 팬은 BTS의 자기정체성을 고민하게하는 타자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이상화된 타자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BTS의 ‘LOVE YOURSELF 結 ‘Answer’」는 나와 팬들에 대한 사랑의 최종적인 ‘결론(Answer)’을 내놓았다기보다, 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고민의 지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MAP OF THE SOUL’ 시기의 노래들이 ‘LOVE YOURSELF’ 시기의 고민을 이어받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swer : Love Myself>에서 잘 드러나듯이 ‘미로’란 인생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인생이 미로인 까닭은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Map of the soul”에서 ‘map’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의미하고,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팬들과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이때 팬은 영혼의 지도를 그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전 단계(Love yourself)에서 답(answer)을 찾기 위해서는 타자의 목소리로부터 도망쳐 달려야 했다. 비록 팬들을 향해 노래하는 것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상화된 타자로서 나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팬의 목소리는 내 영혼을 찾기 위한 지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팬의 목소리는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던 타자의 규정과 어떻게 다른가?

BTS의 미니앨범 6집이자 Map of the Soul 시기의 첫 번째 앨범은 「MAP OF THE SOUL : PERSONA」이다. persona라는 가면을 뜻하던 이 단어가 점차 인격을 의미하게 됐음을 생각할 때,(진교

훈, 2007) 이전 앨범에서 진실한 '나'를 가리는 가면이 여기서는 탐구의 대상이 됐다는 점, 더 나아가 그것이 진실(soul)을 향해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 됐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Intro : Persona〉에서도 지난 Love Yourself 시기부터 지속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내 영혼의 지도"를 그린다. 이 노래에서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나에 대한 타인의 규정에 대한 거부감이 잘 드러난다("나는 내가 개인지 돼진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목걸일 거네"). 화자가 느끼는 '불편함'은 나에 대한 타자의 규정들에 대한 반감 속에서 비롯된다. "소원했던 Superhero" 즉, '양광팬'처럼 팬들에게 노래를 통해 위로하겠다는 다짐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간섭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킨다("누군 달리라고 누군 멈춰서라 해/ 애는 숲을 보라고 개는 들꽃을 보라 해") 팬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고, 이 다양한 존재들은 각기 다른 요구를 BTS에 한다. 따라서 회의와 방황 속에서 또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Who the hell I am"). 이러한 고민 속에서 BTS가 다시 찾는 중심은 팬과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앞서 나를 "Idol"이나 "artist"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나를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타인과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팬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팬과 타자는 '사랑'의 유무로 구분된다("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니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그렇다면 사람들이 규정하고 원하는 '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는 '니가 사랑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것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map of the soul)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너(나)의 온도'가 내 '지도(여정)'의 지남철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다음

단락의 여러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너’의 목소리는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노래의 가사는 ‘팬’이 목소리가 소거된 인물임을 보여준다. 나에게 대한 여러 규정 속에서 참다운 나를 찾지 못해 망설이는 자신에게 화자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일갈한다(“야 이 짓을 왜 시작한 건지 벌써 잊었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넌 그냥 들어주는 누가 있단 게 막 좋았던 거야”에서 ‘누가’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 목소리를 들을, 내 노래를 들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자신이 자신의 망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화자는 나는 자유롭기 원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너에게 죽을 때까지 내 모든 목소리를 들려주길 원한다(“I just wanna fly/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il I die”). ‘너’에게 목소리가 없다. ‘너’는 내 노래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나 안에서 박제된 타자이다. 네가 울 때 내 어깨를 빌려주고 싶다고 말한다(“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shoulders when you cry”). 우는 ‘너’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Map of the Soul 시기의 첫 번째 앨범은 「MAP OF THE SOUL : PERSONA」에서 내 안에 박제된 ‘너/팬’을 위로하는 것은 자기유쾌적 환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다음 발매된 BTS의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2020)은 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MAP OF THE SOUL : 7」에 수록된 곡들은 과거 LOVE YOURSELF 시기의 “고민보다는 강 달리”는 것을 비판하며, 이를 통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세계적 보이밴드로 발돋움하기까지 열심히 활동해온 것 자체가 그들의 정

체성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들에 대한 타인의 규정과 자기 안의 혼란을 뒤로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달리기를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통을 느낀다 (“Woo 매일 설렜지 내가 어디까지 갈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 . .) 아무도 말 안 해줬잖아/ 여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말야/ 나의 도약은 추락이 될 수 있단 걸”, 〈Interlude : Shadow〉). 결국 ‘끊임없는 운동’ 역시 삶의 ‘진정함’을 채워주지 못한 것이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찬란한 삶’ 속에서 “내 그림자는 되려 더 커져 나를 삼켜 괴물”이 되는 상황에서 “때론 너의 휴식은 추락이 된단 걸/ 이제야 알겠니 매번 최선이 최선이란 걸”이란 고백은 불안과 고독 속에서도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섬뜩한 인식이 된다(〈Interlude : Shadow〉). 〈시차〉에서도 화자는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자기가 선 곳에 위화감을 느낀다(“왜 나만 다른 시공간 속인 걸까”). LOVE YOURSELF 시기의 〈IDOL〉과 달리 여기서 화자는 자신의 ‘달리기’에 확신이 없다. 분명 자신은 “해 뜨는 곳으로 달렸”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찌면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과 반대인 ‘해가 지는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불안은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그것은 그들에게 ‘폭탄’처럼 큰 고통을 초래한다. 이는 같은 앨범의 〈Louder than bombs〉란 곡에서 잘 드러난다.

〈Louder than bombs〉는 2015년에 개봉한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동명의 영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영화는 종군 사진기자였던 어머니 이자벨의 사망 후 남편과 두 아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다룬다. 아버지와 형은 이자벨이 돌아온 가정에 위화감을 느끼고, 이자벨이

불륜을 했으며 자살했다는 비밀을 막내 콘래드에게 비밀로 하지만, 콘래드는 결국 이자벨의 직장 동료이자 불륜 상대였던 리처드의 신문 기고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사랑했고 그리워하는 엄마가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은 콘래드에게 큰 충격 (Louder than bombs)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Map of the Soul 시기의 노랫말들이 팬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앨범 소개에 나와 있듯이 「MAP OF THE SOUL : 7」은 “그 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이 또한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자 하는 모습을 담고자 했다. 앨범 소개에서 해당 곡에 대해 “전 세계를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쏟아지는 아픔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슬픔과 두려움이 커져간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한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얘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나의 폐쇄적 자기 인식에 균열을 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폈듯이 〈Intro : Persona〉에서 팬은 목소리가 소거된 인물로 자기 규정성을 잃고 내 안에 박제된 타자였다. 하지만 여기서 BTS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이들 속에서 “낮선 그림자”를 보고, “네가 지었던 그 표정이 그 표정이 아닌란 걸 안 그때부터” ‘폭탄보다 더 크게 부서진다(이젠 너무 선명해졌어/ 저 환호 속의 낮선 그림자/ 아마 다신 믿을 수 없을/ 좋은 것만 보고 듣잔 말// 고요한 너의 슬픔이/ 나를 흔들어 (. . .) Louder than bombs I break).’ 영화 속 어머니 이자벨의 위치에 팬들을,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는 콘래드의 위치에 BTS를 놓을 때, 팬들이 갖는 타자성이 도드라진다. ‘어머니’라는 단어로 이자벨을 가둘 수 없듯이, ‘나를 사랑하는 팬’들로 그들을 박제할 수 없다. 목소리를 가진 타자로서 현현한 그들은 화자가 선 땅을 무너뜨린다(“Where’s my way?/ 계속 흔들리는 ground/ 홀

로 무너지는 중 mute/ Louder than bombs yeah”).

‘폭탄보다 더 크게 부서졌던’ 그들은 ‘폭탄보다 더 크게 노래 부르겠다’고 약속한다(“Louder than bombs I sing/ 너와 내게 약속해/ 어떤 파도가 덮쳐도/ 우린 끝없이 널 향해 노래할 거라고”). 내 안에 가둘 수 없는 타자의 목소리, 내가 선 땅(ground)을 무너뜨리는 타자성, 다시 말해 타자성을 제거한 자기동일성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들을 위해 노래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타자의 규정에서 ‘벗어나’ 자기유희적인 단독적 자아의 확실성에서 매달리던 것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나의 있음’의 의미를 쇄신해간 것이다. 물론 여전히 팬들이 보여주는 타자성은 그들이 지닌 슬픔에 한정되며, ‘아티스트’와 ‘아이돌’ 사이의 갈등 등 정체성에 대한 BTS의 고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⁸⁾ 하지만 각자의 삶에 대한 보편적 의미부여가 불가능해지고, 사회질서와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오늘날, ‘나의 있음’의 의미와 연속성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BTS의 행보는 타자에 대한 폭력적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자신과 타자를 사랑하는 법’을 고민하는 동시대인들에게 하나의 참조점이 될 것이다.

3. 나오며

지금까지 2019년부터 전세계 최고의 남녀 아이돌 그룹으로 인정받아 온 BTS와 블랙핑크의 노랫말 속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8) 이러한 타자로서의 팬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나올 Map of the Soul 시기의 다음 앨범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BTS의 ‘나’에 대한 사랑과 블랙핑크의 ‘너’의 대한 사랑은 매우 달라보이지만, 이들은 결국 타자가 없는 자기유폐적인 사랑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블랙핑크는 데뷔 초부터 ‘불’ 같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 파국적인 것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다음 앨범 『Square Two』(2016)에서 사랑은 불이라는 은유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사랑은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는 은유가 결합하여 사랑의 파국적인 속성은 더욱 강조된다. 마침내 『마지막처럼』(2017)에서는 사랑을 강도 살인과도 같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은유하고 이러한 인식은 『Square Up』(2018)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사랑의 파국이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강렬함과 영원성 그리고 진정성을 보증해주는 반대급부라는 인식이 나타난다. 이후 『Kill this Love』(2019)에서는 전환을 모색하며 이렇게 자기파괴적인 사랑 따위는 죽여버리자고 선동한다. 여전히 사랑은 마약 같은 것이지만 그러한 중독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약 같은 것이기에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The Album』(2020)에서는 타이틀곡 〈Lovesick Girls〉을 통하여 다시 결국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며, 사랑을 자신의 존재 의미가 걸려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존주의 철학자 카뮈가 시지프스의 부조리를 묘사한 것처럼, 블랙핑크는 결국 사랑이 파국이 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고통만이 유일한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견디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블랙핑크는 노랫말 속에서 나와 다른 타자로서의 ‘너’에 대한 고민은 녹아있지 않다. 그는 왜 나와 다를까, 이러한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타자에 대한 고민과 그와 경험을 공유해가면서 나와 너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BTS도 처음에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식하지 않고, 고민 없이 달리는 행위를 통해 재귀적으로 ‘나는 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 ‘타자’인 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LOVE YOURSELF 結 'Answer」(2018)의 〈IDOL〉, 〈ANSWER〉 등에서 BTS는 자신들에 대한 타자의 규정과 자기 안의 다양한 모습들로 인해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BTS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며, 다양한 모습들은 모두 ‘나’라는 재귀적인 자기규정을 바탕으로 그러한 고민의 중지를 선언한다. 흥미로운 점은 〈IDOL〉에 인용된 영화 「페이스 오프(Face/Off)」와 애니메이션 「양팡맨(アンパンマン)」은 ‘정체성’과 ‘사랑’의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는 것이다. 「페이스 오프」는 〈IDOL〉의 표면적 주제와 달리 ‘나’의 인격은 타인의 규정(얼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며, 「양팡맨」은 팬들을 향한 사랑과 노래를 자신들의 소명으로 삼은 BTS에게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팬이 이상화된 타자를 넘어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타자가 될 수 있는 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가장 최근 정규앨범인 「MAP OF THE SOUL : 7」(2020)의 〈Louder than bombs〉는 타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을 향해 환호하는 팬들이 갖는 내면의 슬픔을 접한 후 자신들의 동일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서술한다. 이는 자신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타자와의 조우와 그것을 통한 타자(팬)에 대한 사랑의 심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발전된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 논문은 블랙핑크와 BTS 노랫말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두 그룹의 노랫말을 통해 타자를 향한 열림 속에서 ‘나’의 의미와 연속성을 찾아가는 ‘사랑’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여기에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

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나’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의미에 대한 성찰, ‘나’의 존재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의미 있는 ‘관계맺음’은 어렵다는 사실을 두 그룹의 노래는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도경. 2019. 「BTS 가사의 주제와 세계전유방식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김영대. 2019. 「BTS: THE REVIEW」, 알에이치코리아.
- 김영환 · 윤보미 · 김선정. 「대중가요 가사를 통한 학교와 교육에의 시사점 연구: 방탄소년단 노랫말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21(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87-99
- 김진규. 2017, 「『가면고』에 나타난 자기 관계적 부정성과 사랑」 「한국현대 문학」 53, 한국현대문학회: 119-149
- 반원군, 2020. 「케이팝 아이돌의 가사에 관한 연구: BTS의 가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 변광배, 2005. 「존재와 무」, 살림.
- 윤여광. 2019.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장유나. 2020. 「국내 시대별 아이돌의 음악적 특징과 대중적 영향력 변화 양상 고찰: 1세대부터 3세대의 아이돌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 정지은. 2019. 「케이팝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9(3), 한국문화산업학회: 63-72
- 조광계. 2013. 「존재의 충만 간극의 현존 장 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강해 2」, 그린비.
- 진교훈. 2007. 「인격」, 서울대학교출판부.
- 천정환. 2010. 「정사, 사라진 동반자살」 「내일을 여는 역사」 41,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30-253
- Zhang Kehui. 2021. 「『방탄현상』의 문화적 함의와 팬덤 수용의 명과 암: 방탄소년단의 텍스트와 관련 사회적 논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슬라보예 지젝. 2008.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한보희 옮김, 새물결.
- 알베르 카뮈. 2016. 「시지프 신화」, 김화영 옮김, 민음사.
- 자콥 로고진스키. 2017. 「자아와 삶」, 이은정 옮김, 도서출판비.

조르주 바타유. 2009.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민음사.

Auslander, Philip. 2019. “Framing Personae in Music Video”, *The Bloomsbury Handbook of Popular Music Video Analysis*. Ed. Lori A. Burns & Stan Hawkins. NY: Bloomsbury Publishing Inc.

Abstract

Meaning of Love in the Lyrics of BTS and BLACKPINK.

Kim, Jin Gyu · Chong, Ki In

(Gachon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love in the lyrics of BTS and BLACKPINK,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the world's best male and female idol groups since 2019. BTS's love for "me" and BLACKPINK's love for "you" seem very different, but they are common in that they are ultimately self-contained love without others.

BLACKPINK emphasized love like "fire" from the debut, implicating that this love would be catastrophic. Since then, they show the perception that the catastrophe or death is not fearsome, but rather guarantees the intensity, eternity, and sincerity of love. Furthermore, they recognize love as the meaning of their existence. Just as Camus, an existentialist philosopher, describes Sisyphus's absurdity, BLACKPINK sings that it is meaningful to endure the pain of love because it is the only meaning of life, even though they know that love will eventually be catastrophe. However, BLACKPINK does not consider "you" as another human being in the lyrics of the song. Questions like why is they different from me, how can I accept this difference, and efforts to change us by sharing experiences have not yet emerged.

At first, BTS also argues that "I am me" recursively through the act of running without recognizing the other's otherness. However, they begin to think about how to love "me" in their relationship with fans who are the other. BTS declares the suspension of such concerns based on its recursive self-regulation, "I know who I am and what I want, I do what I need to do," and various aspects are all "me."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others, the recent album describes the experience of their identity collapsing after encountering the inner sadness of fans cheering for them. This shows a more advanced perception than before in that it showed the encounter of the other who cracks their world and the deepening love for the other (fan) through it.

In this way, this paper analyzed the process of changing meaning of love in the lyrics of BLACKPINK and BTS. These two groups are developing their thoughts on love through

their songs, and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re is a universal point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can sympathize with. The songs of the two groups show that loving “me” and “you” cannot be separated from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love, reflection on the existence of “me”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hat meaningful “relationship” is difficult when someone is trapped in their own world.

Key words : BTS, Blackpink, The Other, absurd, K-pop

논문 투고일: 2021년 10월 19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11월 2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25일